

관세·무역 ‘으르렁’ 미·중 “정면충돌 원치 않는다”

APEC 앞두고 고위급 조율 주목...상호 공세적 조치 유예 관전

히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관세 100%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미국) 카드를 꺼내며 으르렁대던 미중이 12일(현지시간)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각 내며 상황 관리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이 9일 발표한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대화

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밝힌 뒤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했다.

양국의 갈등이 분출됐던 지난 10일 미국 중사가

급락한 데서 보듯 양국간 관세·무역 전쟁의 ‘휴전’이 깨지고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자국과 국제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양측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추수감사절(11월27일)과 크리스마스 연휴 등 미국의 대표적 소비 시즌을 앞두고 중국과 다시 초고를 관세로 맞설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으로 자신의 경제정책 간판인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도 의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발에 대응할 나뭇의 준비를 한 채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이지만 대미 관세가 100% 수준으로 올라감으로써 양

국 교역이 사실상 단절되고, 첨단 기술 관련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자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측 모두 협상 상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의 관심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를 계기로 한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써 11월 중순에 끝나는 ‘미중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할 수 있을지에 쏠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SNS에서 밝혔지만 같은 날 취재진의 질문에는 APEC 계기에 한국을 찾을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미중 정상간)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APEC까지 남은 보름여 시간 동안 미중간에는 모종의 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히토류-관세 관련 공방이 없었더라면 APEC 계기 미중정상회담 의제 조율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지만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뒤라 상황이 달라졌다. 서로 체면 손상을 최소화해가며 각자 발표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조치들을 유예 또는 취소하기 위한 섬세한 외교가 필요해진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양국 정상의 정무·경제 분야 최고위 참모가 제3국에서 만나 갈등 무마 및 입장 조율을 함으로써 APEC 계기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트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트럼프 “가자전쟁 끝났다...휴전 유지될 것”

이스라엘 인질 가족 만나고 이집트서 중동 평화회의 참석
“푸틴과 ‘우크라 미사일 지원’ 대화 필요...전쟁 해결 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휴전 합의 1단계가 발효되면서 양측간 교전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중동 분쟁)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일이고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은 유지될 것이고, 국제 안정화군이 훌륭하고 강력한 지원 역할을 일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중동에 파견되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의 군 공동 태스크포스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할 국제관리기구인 평화위원회도 “매우 빠르게” 구성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난다.

같은 날 오후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년을 훌쩍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 지원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만약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토마호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곧바로 지원하기보다는 러시아와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마차도 노벨평화상 민주화 촉진할까 탄압 심화될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사진)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민주화에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정권의 탄압이 강화되는 반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마차도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주화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는 와중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몇몇이라고 소개했다.



마차도의 수상이 발표되자 국제사회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후 권위주의적 통치와 경제 위기에 시달려온 베네수엘라에 정치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라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와 정진만큼은 간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투쟁은 계속된다”고 썼다.

책 ‘베네수엘라의 붕괴’의 저자인 카를로스 리사랄데도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국제사회에서 야당 지도자로서 그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입장이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권위주의의 정권에서 반정부 인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해도 별다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데이비드 스밀데 미국 틀레인대 교수는 “이상이 분명 베네수엘라 내 갈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 끌고 아마 이를 해결하려는 결의를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이전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례로 볼 때 근본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시몬 페레스

미네소타 대학교 정치학 교수도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여된 노벨평화상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으면서 이상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와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를 예로 들었다.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계속 수감된 상태로 있다가 7년 뒤인 2017년 사망했고, 중국은 이후 더 억압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에바디의 경우는 노벨평화상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돼 이란 당국의 박해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에바디의 노벨평화상 수상 때문에 더 심한 억압을 받았다는 게 크렘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노벨평화상이 “더 큰 열의로 나설 수 있도록 인권운동가들을 고무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억압적인 정권에게는 더욱 억압할 동기를 준다”며 “따라서 국내 정치적 변화를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해를 끼치는, 매우 문제가 많고 우려스러운 역할을 만들어낸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폭우로 사망자 속출...곳곳 산사태

멕시코에서 최근 며칠간 폭우로 곳곳에서 산사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해 최소 44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베라크루스주(州)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

으며 이달고주, 푸에블라주, 케레타로주에서 각각 16명, 9명, 1명이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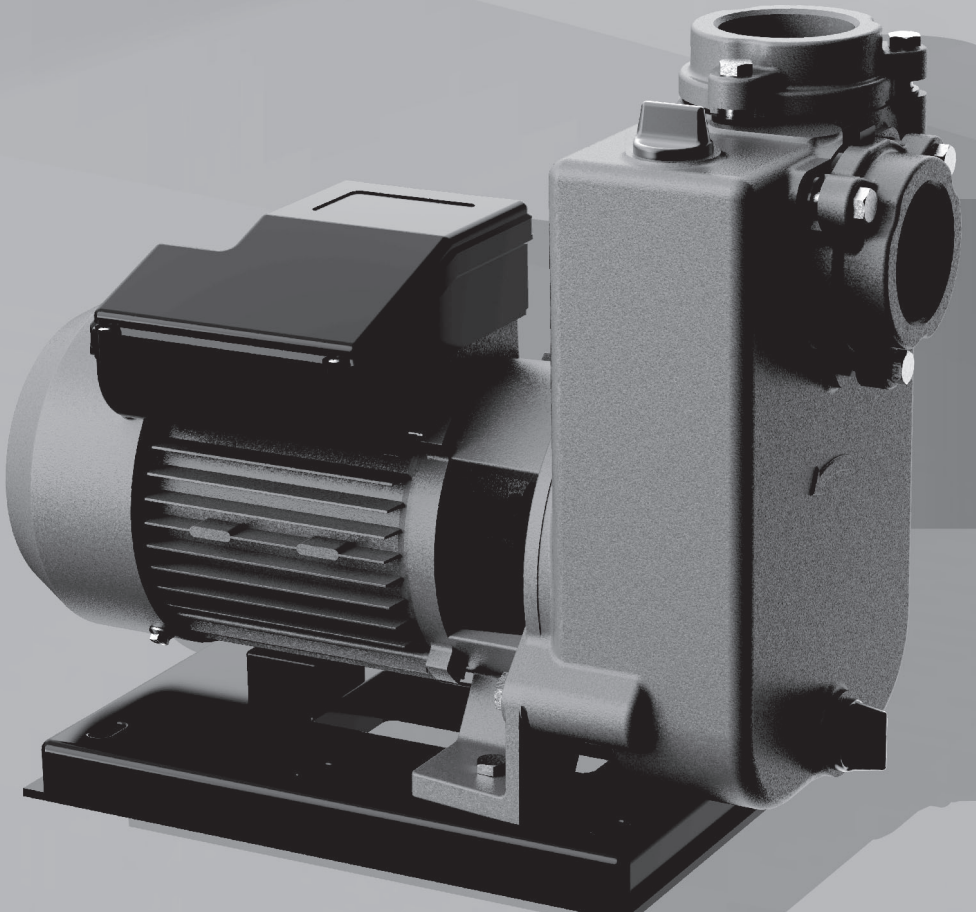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멕시코 정부는 폭우 피해를 본 139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폭우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주지사들은 물론 여러 연방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 위원회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허리케인에서 현재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프리실라’와 ‘레이몬드’가 지나가며 지난주 전국 32개주 가운데 31개주에서 비가 내렸다. 전날 멕시코 정부는 집중 호우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실종됐다고 잠정 집계를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